

광주 AI사관학교, 실무형 인재 307명 배출

제6기 수료식...5개과정 운영·기업 프로젝트 58건 수행

78명 조기 취·창업 성과...23개 기업 참여 채용박람회

광주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대표기관인 'AI 사관학교'가 올해 307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 중 78명이 조기에 취업·창업에 성공하면서 실질적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6기 수료생은 총 307명이다.

수료식에는 제6기 수료생을 비롯해 김은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지역 AI 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수료식과 연계해 열린 채용박람회에는 ㈜이스트소프트, 현대솔라텍, 터빈크루 등 23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 AI 사관학교는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0년 개교 이후 이번 6기까지 총 1528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1~5기 졸업생의 취·창업률은 71.2%에 달한다. 이번 기수에서도 78명이 이미 조기 취·창업에 성공하며 높은 실효성을 입증했다.

시는 올해 교육과정을 기존 3개 트랙에서 5개 과정(AI 모델링, AI 기반 서비스, AI 플랫폼·인프라, AI 데이터 기술, AI 비

즈니스)으로 확장하고 총 1300시간 규모로 강화했다. 특히 18개 기업이 참여한 기업 연계 프로젝트(9~12월)를 운영해 약 58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현장 기반의 실전 역량을 키웠다. 또한 AI 견습생 프로그램, AI 특화 창업 프로그램 등 실무형 프로그램을 병행해 취·창업 역량을 높였다.

한 교육생은 "기업 연계 프로젝트에서 고객 리뷰 데이터 분석, 소상공인 지원 챗봇 개발 등을 직접 구현하며 실제 서비스 완성 경험을 쌓았다"며 "기술을 끝까지 '서비스'로 완성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4명은 내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ICT 전시회인 '2026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MWC)' 참가 기회를 얻어 세계 기술 경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7년 차를 맞는 인공지능(AI) 사관학교는 내년부터 실무 중심 교육에서 고급·심화 교육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에 맞춰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공지능(AI) 전문가 멘토링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해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하는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최고 전문가 멘토링 중심의 'AI·SW 마에스트로 과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사업비 105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광주시는 11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6기 수료생은 총 307명이다.

프트웨어) 최고 전문가 멘토링 중심의 'AI·SW 마에스트로 과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사업비 105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설계 기업 Arm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rm스쿨의 광주 설치를 발표한 것은 광주가 인공지능과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강으로 도약하도록 광주가 든든한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순회 설명회

광주·대구·부산·서울 등 4곳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순회 설명회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광주시청)와 부산(금정구

청), 17일 서울(금융감독원) 등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다.

지역별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대부업체가 준수해야 할 법규를 안내하고, 그간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 내용도 안내한다. 특히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불법 사금융의 처벌도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준수 관련 유의사항 및 금융당국의 민생침해적 범죄 근절 노력을 함께 전파함으로써, 대부업권의 경각심 제고는 물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KT, '수능 만점' 광주서석고와 결연...AI 교육 지원

특강 등 미래역량 강화

선배들, 최장우군 격려

KT전남전북광영본부는 11일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광주서석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인공지능(AI) 교육 지원과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역 교육의 활력을 불어넣고 AI 교육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KT는 자매결연으로 졸업 예정인 광주서석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위한 AI 도구 활용' 등 다양한 AI 특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철 KT전남전북광영본부장(상무)은 "올해 수능 만점을 받은 최장우군의 성취는 지역사회의 큰 기쁨이다"며 "이번 광



KT전남전북광영본부는 11일 광주서석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인공지능(AI) 교육 지원과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에 나선다.

주 서석고와의 결연을 계기로 서석고 학생이 AI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송찬국 광주서석고등학교장은 "광주 서석고의 명성을 빛낸 최장우군을 축하해준 KT 선배에게 감사하다"며 "KT와의 결연으로 학생이 미래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KT 광주 서석고 출신 선배들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최장우군을 축하하며 KT광주타워에 현수막을 걸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은행, 걸으며 금리 챙기는 '워킹런 적금' 출시

개인·팀 미션 달성 최고 연 7.0% 혜택

Wa뱅크 2주년 애플워치 등 경품 제공

광주은행은 걷기 실천만으로 최고 연 7.0%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워킹런(Walking Run) 적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워킹런적금'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한 걸음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걷는 습관만으로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고객은 개인 미션을 통해 최대 연 4.0%p, 팀 미션을 통해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 연 1.0%에 모두 충족할 경우 최고 연 7.0% 금리가 적용된다. 개인 미션은 고객 누적 걸음 수에 따라 30만보, 50만보, 100만보, 150만보의 네 단계 구간별

로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팀 미션은 지인·가족·직장 동료 등으로 팀을 구성해 팀원의 누적 걸음 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팀원 수×130만보를 충족하면 연 2.0%p의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된다.

적금은 14세 이상 실명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한 6개월 제 정기적금이다. 상품 출시와 함께 Wa뱅크 2주년 기념 '걸어서 용돈받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상은 14세 이상 Wa뱅크 이용고객이며, 진행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이벤트는 매일 걸음달성 미션, 건강퀴즈, 공유하기 미션을 완수하면 랜덤



응돈과 티켓 1장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응돈은 실시간 계좌 입금되며, 티켓은 경품 응모 또는 교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응모 가능한 경품은 애플워치 11(1명), 에어팟 프로3(2명), 갤럭시 버즈3 프로(2명), ABC마트 20만원 상품권(10명) 등이며, 티켓 10장당 1회 응모가 가능하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광남일보

신춘문예 작품공모



광남일보가 한국문학과 지역문학을 이끌면서 미래 K-문학을 선도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예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2026 광남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더할 패기 있는 신예 작가들의 당찬 도전들을 기다립니다. 광남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학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단편소설·동화·평론 부문 ... 12월 17일(수) 접수마감

부문 및 고료

- 시 부문 : 5편(당선작 1편·상금 150만원)
- 단편소설 부문 : 200자 원고지 80매 내의(당선작 1편·상금 200만원)
- 동 화 부 문 : 200자 원고지 30매 내의(당선작 1편·상금 150만원)
- 평 론 부 문 (문학·미술·무용·연극 등) : 200자 원고지 50매 내의(당선작 1편·100만원)

접수마감 및 당선작 발표

-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7시까지 도착 작품에 한함
- 2026년 1월 1일자 신년호 지면

응모요령

- 원고는 A4 용지에 출력
- 응모작은 이별표 순수창작품일 것
- 당선작의 경우 추후 표절 및 동일 작품 복수 응모는 당선을 취소함
- 결봉투에 응모분야와 작품 편수 기재
- 원고 끝에 이름(필명일 경우 본명 명기)과 나이, 약력, 주소, 전화번호 명기할 것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된 날로부터 1년간 광남일보에 있음
- 기작은 당선작의 상금 50%를 지급함

접수처 및 문의

-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광남일보 문화체육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방문 및 우편접수)
- 문의 (062)370-7090, 7234